통도사 보살계 산림 회향…“소중한 인연”

4월 13~15일 금강계단에서
사부대중 모여 환희 수계해
전계대화상 율주 덕문 스님
학업 매진한 스님 장학금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영축총림 통도사가 봉행한 금강계단 보살계 수계산림. 삼사 칠증사 스님들이 들어서고 있다.

계율근본도량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가 보살계 수계산림을 봉행하고 불자들이 지계정신으로 수행 정진할 것을 당부했다.

통도사는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경내 금강계단에서 ‘불기 2568년 영축총림 통도사 보살계 수계산림’을 봉행했다. 수계산림은 통도사 율주 덕문 스님이 전계대화상을, 갈마아사리는 전 통도사 강주 현진 스님, 교수아사리는 통도사 강주 인해 스님이 삼화상을 맡았다. 또 칠증사로 유나 영일 스님, 서축암 감원 우진 스님, 안양암 감원 종현 스님,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 통도사 한주 만초 스님, 율원장 도암 스님, 염불원장 영산 스님이 참여해 계단을 증명했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계는 우리가 부처 성불의 길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자 마음의 그릇을 만드는 일이다. 통도사에는 10년, 20년, 30년 동안 인연을 이어온 불자들이 계신다. 그분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며 “불자님들은 계를 목숨처럼 받아 지니고 지켜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보살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통도사는 신라시대 자장 율사가 금강계단을 쌓아 계를 내린 ‘계율근본도량’으로 계율의 법맥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통도사 측은 “신라시대 자장율사가 부처님의 정골사리와 가사, 대장경 400여 함을 봉안해 646년에 창건한 도량이다. 창건 당시 대승계율을 강조해 금강계단이라는 수계 단을 만들어 신라불교의 기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통도사는 이를 기념하며 음력 3월 5일부터 7일까지 매년 대규모 보살계 수계산림법회를 봉행하고 계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불자들의 신행생활과 지계를 돕고자 성만패 및 메달을 수여해 수계를 독려하고 있다.

올해 보살계 30회 성만 기념패는 김정자(진여행), 진춘자(수심행), 김미경(금련화), 박정희(지행심) 씨 등 4명이 받았으며 25회는 김말순(상근화), 서우현(수연화) 씨 등 2명이 성만패를 받았다. 기념 메달은 20회 4명, 15회 15명, 10회 14명이 받았다.

아울러 통도사는 보살계 수계산림 회향식에서 학업과 연구를 이어가는 스님들에게 영축총림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율원 금린 스님, 강원 성제 스님 등 박사과정 4명과 석사과정 6명, 학사과정 3명, 승가대학원 및 율원 학림 20명, 승가대학 4명 등 총 37명에게 3020만원을 전달했다.

김봉철 부산공무원불자회장 취임

“불자회 화합에 최선 다해”



김봉철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사진〉이 부산시공무원불자회 제10대 회장에 취임했다.

부산시공무원불자회는 4월 12일 범어사 선문화 교육관 대강당에서 ‘부산시공무원불자회장 이·취임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 조계종부산연합회장 목종 스님,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을 비롯한 공무원 불자들이 참석했으며, 개회, 삼귀의례, 반야심경, 경과보고, 내빈소개, 이임사, 공로패 및 사진첩 증정, 취임사, 격려사, 축사, 법문, 임원단 소개, 발원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김봉철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현하고 공무원 불자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겠다”며 “불자로서 모범적이고 화합하는 불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삼종 전 회장은 이임사에서 “김봉철 신임회장이 불자회의 화합과 발전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그동안 소임을 맡아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부산시공무원불자회는 1991년 9월 당시 부산시청 내무국 시정과장으로 재직하던 주동관 전 상수도본부장이 초대회장을 맡아 모임을 시작했다. 당시 20여 명의 불자들이 근무 후 회의실에 모여 법문 테이프를 들으며 신행활동을 이어갔다. 이후 1996년 당시 교통기획과장으로 재직하던 최익두 고문이 2대 회장에 추대돼 2009년 7월까지 18년 동안 이끌며 모임을 확장해 공무원불자회를 창립했다. 현재 부산시공무원불자회 회원 수는 시청을 비롯해 구·군 등을 포함해 총 1500여 명에 이른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어르신과 함께한 ‘한마음 효잔치’

부산 한마음선원, 어르신 초청해 공양 올려

개원 이후 지역민 초대 처음
공연 · 선물 등 행사준비 만반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에서 봉행된 ‘한마음 어르신 효잔치’ 현장.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 스님)은 4월 17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한마음 어르신 효잔치’를 개최했다. 행사는 인근 복지관과 연계해 지역 어르신을 초청, 공양을 올리고 흥겨운 공연을 열었다. 1987년 개원한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이 지역민을 도량으로 초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는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 박해일 신도회장, 이화행 신도부회장, 김기재 영도구청장, 이경민 영도구의회 의장, 조승환 국회의원 당선인 등 주요 내빈과 어르신 600여 명이 참여했다.

한마음 어르신 효잔치는 공양, 기념식, 무대공연의 순서로 진행됐다. 공양은 부산지원 사부대중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국과 반찬, 다과로 차려졌으며 선원 신도들은 봉사자로 동참해 어르신들을 안내하며 환영과 공경의 마음을 전했다.

지원장 혜도 스님은 기념식에서 “그동안 영도의 발전과 복지에 꾸준히 마음을 기울이고 이웃을 위한 작은 나눔이라도 하고자 노력해왔지만 마음 한편에는 지역주민과 더 나누고 소통하는 기회가 많기를 바랐다”며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왔던 원 하나를 이룬 것 같아 어르신들을 뵙는 마음이 기쁘다”고 기념사를 전했다.

김기재 영도구청장은 “따뜻한 봄날, 이렇게 좋은 곳에서 여러 어르신들을 뵈어 반갑고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스님과 신도들께 감사하다”며 “영도에는 다른 지역보다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신다.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하시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인사했다.

이어진 무대공연에서는 한마음선원 어머니 부산선법합창단의 선법가 공연,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신도 김종희 거사의 아코디언 연주, 초대 가수의 노래로 어르신들의 흥겨움을 더했다. 행사가 끝나고 돌아가는 어르신들은 배웅하는 지원장 혜도 스님에게 “오늘 도량에 와보니 법당도 훌륭하고 밥도 맛있고 너무나 즐겁게 보내다 간다”고 감사를 표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그동안 영도구 및 서구 복지관 등 9곳에 떡 나눔 보시를 이어왔다. 특히 올해는 영도구와 함께하는 ‘위기 가구 지역사회가 함께 찾는다-2024복지사업등기사업’에도 앞장섰다. 이 사업은 영도구 관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정을 적극적으로 찾는 복지 사업이다. 아울러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연말 및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영도구 관내 저소득 주민에게 백미 및 성품을 꾸준히 기탁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쿠무다 음악회, 5월엔 ‘마로니에공원’

부처님오신날 · 가정의달 기념
5월 3일 서울 종로구 찾아



지난해 5월 10일 부산 해운대구에 소재한 육군 53사단 충렬부대 충렬관에서 열린 쿠무다의 찾아가는 봉축음악회. 자료사진

사단법인 쿠무다(이사장 주석 스님)가 5월 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위치한 마로니에공원에서 ‘꽃피는 시절 추억의 멜로디’를 주제로 음악회를 개최한다. 부처님오신날과 가정의달을 기념하는 이번 음악회는 사단법인 쿠무다가 주최하는 ‘찾아가는 음악회’다. 올해 15회를 맞는 ‘찾아가는 음악회’는 다양한 장소에서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출연진들로 꾸며졌다. 이번 음악회 출연진은 미스트롯 송가인, ‘칠갑산’ 주병선, ‘존재의 이유’ 김종환, 리아킴, 국악인 남상일, 상월비보이단 등이다.

이사장 주석 스님은 “문화예술 사단법인 쿠무다는 2024년 세상을 밝고 빛나게 가꾸어 오신 우리 시대 어르신들과 함께 마음의 평화를 얻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자는 취지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한다”며 “화사한 꽃으로 장엄된 5월,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고 가정의달을 맞아 열리는 이 공연은 한국 최고의 뮤지션들이 추억의 멜로디를 선사하는 등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하고 향기로운 축제가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예술 사단법인 쿠무다는 부산 대운사를 모 사찰로 지난 2013년 설립 이래 문화와 예술의 컬래버레이션를 통해 세상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공간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문화예술인과의 만남인 북콘서트와 쿠무다 음악회를 비롯해 무명 예술인들을 위한 무료 갤러리 대관,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과 장학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활동을 더 폭넓게 이어가고자 2021년 12월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쿠무다 명상문화센터를 신축개관했다. 또 2022년 6월 재단법인 명경문화재단도 설립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연등회 성공 회향, 봉사자가 이끈다

4월 11일, 봉사자 발대식



부산연등회봉행위원회(봉행위원장 정오 스님)가 4월 11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부산연등회 봉사자 발대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번 발대식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산불교를 대표하는 신행단체와 봉사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부처님오신날 봉축기간을 위한 봉사자 발대식은 이번이 처음이다. 발대식에는 봉행위원장 정오 스님, 집행위원장 석산 스님, 봉사위원장 법귀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사무부총장 정수 스님을 비롯해 이윤희 부산불교연합회 신도회장 및 신행봉사단체 대표 및 회원들이 동참했다.

발대식에서는 △여래선원 33관음연희단(단장 방수정) △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송재린) △삼광사봉사회(회장 이해순) △대한적십자사 불교지구협의회(회장 김인자) △범어사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회장 조영택) △부산개인택시불자회(회장 한영만) △부산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수현)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회장 김옥희) △부산여성불자회(회장 정분남) △불교TV염불공양회(회장 하정선) 등 10개 단체가 임명됐다.

봉행위원장 정오 스님은 “부산연등회는 국가의 문화가치를 보유한 문화유산으로 고려시대부터 이어온 우리의 역사이다”며 “여기 봉사자들은 그 가치를 전하고 지키는 수호신장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불교와의 인연으로 행복을 얻으신 것처럼 이번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그 행복을 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이윤희 부산불교연합회 신도회장은 “부산연등회에서 보여주는 200만 부산불교도의 결집을 통해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행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반야선원 보리수회 금강경 365독 회향

정여 대종사 초청법회도



금정총림 범어사 직할포교원 해운대 반야선원이 금강경 독송 365일 기도를 회향했다.〈사진〉

반야선원 보리수회(회장 손승수)는 4월 13일 부산 해운대 장산 대원각사에서 ‘금강경 독송 회향 및 금청총림 범어사 방장 여산 정여 대종사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회향법회에는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정여 스님, 대원각사 주지 안도 스님, 김영신 반야선원 포교사회 회장, 박종안 조계종 포교사단 부단장, 정분남 부산여성불자회장, 김옥희 통도사 포교사회 회장, 박유순 신라문화원장를 비롯해 포교사들과 불자들이 동참했다.

대원각사 주지 안도 스님은 “금강경 독송 기도 365일 회향에 불교의 큰 어르신 범어사 방장스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이다. 금강경을 나 혼자 독송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회향하며 불도 부산에 불교 바람을 다시 일으키기를 기원한다”며 “올해는 108명이 함께 했지만 내년엔 1250명이 함께 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는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은 생각에 속지 않아야 하고 금강경은 자기 마음을 바로 보게 하는 힘이 있다”며 “똑같이 살아도 나를 위하고 나만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면 온 세상 사람들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이끌어주실 것”이라고 법문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다가오는 봉축을 맞아 등을 들고 대원각사 차밭을 돌며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면서 회향했다.

한편 반야선원 보리수회는 지난해 4월 15일 창단돼 조계종 소의경전인 금강경을 매일 독송해 왔다. 조계종 포교사 30여 명으로 시작해 현재 100여 명이 독송회에 동참하고 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범어사 문화유산 하나씩 알아가요”

성보박물관 문화유산 활용사업

금정총림 범어사 성보박물관은(관장 정오 스님) 2024년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사업 ‘대웅(大雄), 위대한 영웅을 찾아서!’를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운영 프로그램은 △대웅, 위대한 영웅을 찾아서! △잘 놀고, 잘 먹고, 잘 자자! △알쓸범대, 알고보면 쓸데 있는 범어사 대웅전 이야기가 진행된다.

‘대웅, 위대한 영웅을 찾아서!’는 대표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문화해설사와 함께 범어사 경내를 답사한 뒤 대웅전 속에 숨어있는 단청과 벽화의 문양을 찾아 채색하고, 대웅전을 직접 만들면서 조선시대 건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범어사 대웅전은 부산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중 하나로, 1602년 창건된 이후 여러 번의 중창을 거듭하였음에도 상량문에 기록된 1658년 건립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2024년 현재도 예불을 드리는 공간으로 지속 가능한 문화유산의 활용을 보여주는 곳이다.

아울러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부모를 동반한 6세부터 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박물관 문화 탐방을 떠나요!’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24년 5월 11일부터 11월 23까지 둘째, 넷째 주 토요일에 실시하며, 박물관에 소장된 문화유산을 감상하고 소장품을 활용해 관련 작품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알알이 소망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연꽃 테라리엄 등 다채롭게 마련되며 특히 7월에는 연꽃 씨앗을 가정으로 배송해 직접 키우고 관찰일지를 작성하는 가정연계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9월에는 범어사 소장 삼국유사를 관람하고, 삼국유사 목판을 직접 인경 체험한 뒤 전통방식으로 책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